

ISSUE

2018 08호



PAPER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참여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2018 08호

가
PAPER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참여 방안*

* 이 글은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였음.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참여 방안

- 제1호 :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내용과 동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호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김승도 한림대학교 교수)
- 제3호 : 기후변화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 뉴욕주
Reform the Energy Vision(REV)
개혁을 중심으로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호 :물관리기본법 통과 이후의 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 연구
(홍영식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행정관리센터장)
- 제5호 : Role of Waste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il Bhatta Carbon& Clean Energy Solutions (CCES))
- 제6호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빈곤과 불평등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제7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목표의
젠더적 관점의 해석과 국내 이행 방안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김정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제8호 :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참여 방안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참여 방안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01

II.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및 내용 06
2. 조사 결과 07

III. 정책 제언

1.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에 미래세대위원회 설치·확산 30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체적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31
3. SDGs에 대한 청소년 인식 제고 37

참고 문헌 39



I. 서론



I. 서론

유엔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새로운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2014년 유엔 종합보고서는 빈곤 종식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변혁, 환경 보호, 평화와 인권 보장 등,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인류 사회의 미래 비전이자 정책 목표임을 천명하였다(UN SG, 2014).

SDGs의 17개 목표 가운데 SDG 4는 양질의 교육 보장을, SDG 8은 청년 일자리 보장을 다루고 있어 청소년 연령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빈곤(SDG 1, 2), 건강 및 웰빙(SDG 3), 성 평등(SDG 5)과 같은 주제들은 청소년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중요성과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목표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산업 및 환경 영역에 걸쳐있는 나머지 목표들은 기존의 청소년 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는 개념인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환경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SDGs의 관점은 미래사회에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삶의 질, 안전, 권리 등을 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재경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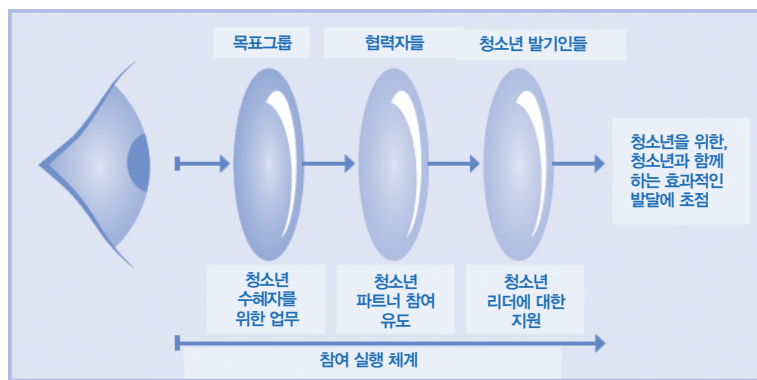
SDGs와 청소년과의 관련성은 여러 유엔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가령, 유네스코의 경우 주로 교육(SDG 4)과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SDGs에 기여할 계획을 수립하고있다(UNESCO, 2015). SDG 4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언급하고("청소년의 문해와 기초산술능력을 성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세부 목표 4)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 접근보장(세부 목표 5), 인권, 양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세부 목표 7)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에는 2001-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교육'(Education for All) 운동 이후의 글로벌 교육 의제 논의 역시 포함되었다(김진희 외, 2014).

UNDP는 빈곤(SDG 2), 교육(SDG 4), 성 평등(SDG 5), 양질의 일자리(SDG 8), 불평등해소(SDG 10), 기후 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파트너십과 이행기제(SDG17) 등을 청소년과 직접 관련성 있는 목표로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표명하였다(UNDP, 2016). 유니세프의 경우에는 SDGs의 모든 목표에 걸쳐 아동의 웰빙 및 권리향상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UNICEF, 2014). 예컨대, 빈곤(SDG 1, 2), 건강(SDG 3), 교육(SDG4), 성 평등(SDG 5) 등 아동의 웰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표이며, 그 밖에도 물(SDG 6), 에너지(SDG 7), 일자리(SDG 8), 불평등(SDG 10), 도시(SDG 11), 기후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등은 아동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환경적인 여건으로서 강조된다. 이외에도 혁신(SDG 9),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SDG 12), 해양 보존(SDG 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이행 수단(SDG 17)의 경우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로서 이행 과정에서 참여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폭넓은 관점에서의 SDGs와 청소년과의 관련성은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내재된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위치와

역할론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 1987년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WCED, 1987: 1)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발전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사회발전의 궤적에서 청소년이 갖는 역할을 새롭게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DP에서는 최초의 청소년분야 전략인 「Youth Strategy 2014–2017」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한 ‘인간의’ 발전(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도전의 해결과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상을 강조하였다(UNDP, 2014). 즉, 지속가능발전은 인간이 환경·경제·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UNDP, 2014: 7). [그림 1]과 같이 UNDP의 전략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개발 또는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단지 참여활동의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파트너와 실행의 주체적인 리더로서 바라본다.



〈그림 1〉 청소년 발달에 관한 세 개의 렌즈 접근법

* 출처: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p. 23.

이처럼 청소년을 주체적인 존재로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 분야에서는 익숙한 관점이다. 예컨대, 199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청소년 실행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이하 UN WPAY)」은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구성하는 정책 틀을 제공한 바 있다. UN WPAY는 정책 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 UN WPAY 2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는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모든 측면에서 청소년 시안들을 심도 깊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Kutesa, 2015a: 3). 또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이행할 때 청소년과 청소년 조직에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SDGs 이행에 있어서 유엔이 풀뿌리조직의 참여를 지원해야 하고, UN Major

Group on Children and Youth(MGCY)과 International Coordination Meeting of Youth Organizations(ICMYO) 등 기존의 유엔 체제와 플랫폼을 통해서 SDGs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Kutesa, 2015b).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최근 SDGs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사회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의 역할과 인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 기회의 보장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SDGs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갖는 인식과 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지닌 역량을 분석해 보고, 청소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II.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및 내용

본 설문조사는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24세 청소년 및 청년이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만 15~24세로 선정한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가치관, 사회 현안, 역량, 참여 의향 등 본 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만15~18세)과 청년(만19~24세)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6년 6월~8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총 986명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여자는 47.6%, 남자는 52.4%였고, 청소년은 39.5%, 청년은 6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의 77%가 현재 학생이었고, 23%는 학생이 아니었다. 학생이 아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55명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표 1〉 조사 참여자 기본사항

구분	사례수(%)					
	성별	여학생		469(47.6)	남학생	
연령	만 15-18세		389(39.5)	만 19-24세		597(60.5)
현재 학생	합계			750(77.0)		
	중학생		67(6.8)	고등학생		275(28.2)
	대학생		403(41.4)	대학원생		5(0.6)
현재 학생 아님	합계			224(23.0)		
	중졸 이하		4(0.5)	고졸 이하		151(15.5)
	대졸 이하		68(6.9)	대학원 졸업 이상		1(0.1)
지역	특별시	165(16.7)	광역시	274(27.8)	도	547(55.6)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상위 (8-10)	130(13.2)	중위 (4-7)	801(81.2)	하위 (1-3)	55(5.6)
아버지의 최종학력	부모님 안 계심		22(2.2)	초등학교 졸업		10(1.0)
	중학교 졸업		29(2.9)	고등학교 졸업		435(44.1)
	2-3년제 대학 졸업		145(14.8)	4년제 대학 졸업		299(30.4)
	대학원 졸업		21(2.1)	잘 모르겠음		25(2.5)
어머니의 최종학력	부모님 안 계심		6(0.6)	초등학교 졸업		10(1.0)
	중학교 졸업		37(3.8)	고등학교 졸업		560(56.8)
	2-3년제 대학 졸업		148(15.0)	4년제 대학 졸업		182(18.5)
	대학원 졸업		10(1.0)	잘 모르겠음		33(3.3)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985(99.9)	다문화 가정	1(0.1)	북한이탈 가정	0(0.0)

- * 주: 1) 중학생: 중학교 재학/휴학
 2) 고등학생: 고등학교 재학/휴학
 3) 대학생: 2-3년제, 4년제 대학교 재학/휴학
 4) 대학원생: 대학원 재학/휴학
 5) 중졸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6) 고졸이하: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중퇴/수료
 7) 대졸이상: 2-3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8) 대학원 졸업 이상: 대학원 졸업

설문조사 항목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현안 인식과 스스로의 역할을 진단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목표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목표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적절하고 중요한가를 묻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 주체로서 어떠한 인식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조사 전체 문항 수는 총 53개이며,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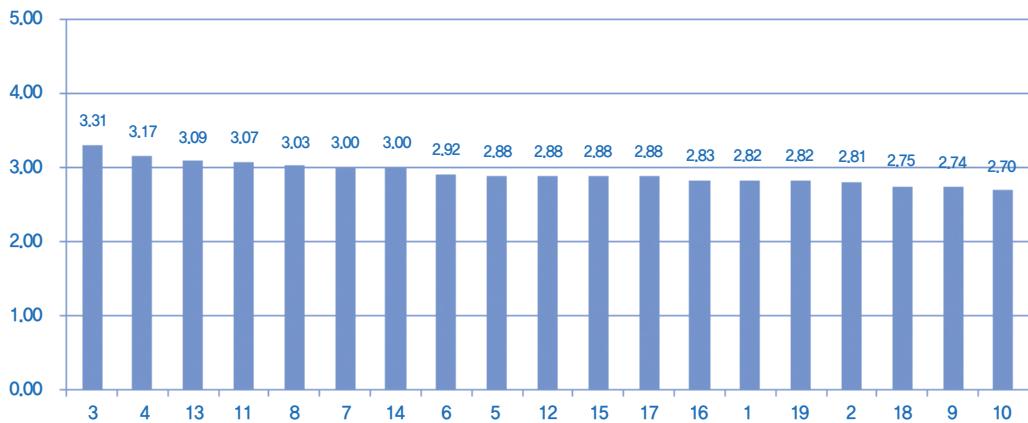
조 사 내 용		문항 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현 상황 인식	19
사회이슈 관심 및 토래 영향력	지속가능발전 관련 관심이슈	11
	청소년 사회문제 관심 및 영향력	2
지속가능발전 참여역량	개인 역량	6
	활동 참여의향	8
기본 사항	인적 사항	3
	가정 배경	4
총 문항 수		53

2. 조사 결과

SDGs의 17개 목표와 관련된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아래와 같이 19개 항목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19개 문항 중 “보통”(평균 3점) 이상은 문항은 7개에 불과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가운데 상위 점수 항목으로는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3.31점), (4) 양질의 학교교육(3.17점),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3.09점),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3.07점),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3.03점) 등이 있었다. 반면, 하위 점수 항목으로는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9)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10)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전체)

	문항	평균
(1)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2.82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2.81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3.31
(4)	양질의 학교교육	3.17
(5)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2.88
(6)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2.92
(7)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3.00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3.03
(9)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2.74
(10)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2.70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3.07
(12)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2.88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3.09
(14)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3.00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2.88
(16)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2.83
(17)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2.88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2.75
(19)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2.82



〈그림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전체)

해당 항목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층별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대기오염 등 오염문제에 대한 평균값은 남자는 2.78점, 여자는 2.89점으로 여자가 남자가 유의미하게 높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에 대한 평균값은 남자가 2.84점, 여자가 2.66점으로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연령층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집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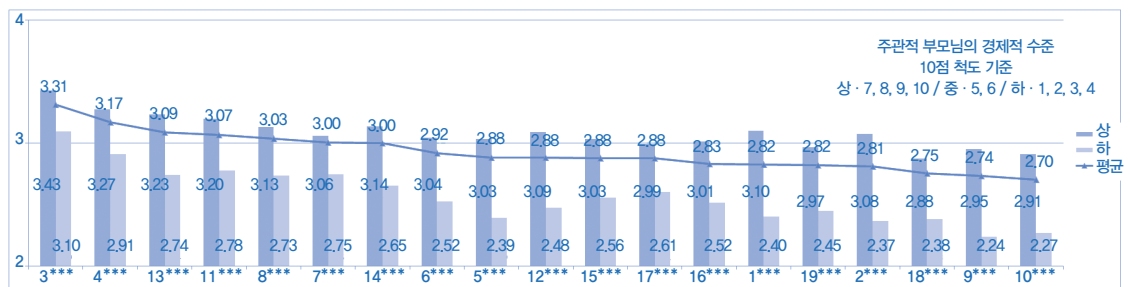
문항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전체	986	2.82	.96	t=.75	연령 (세)	만 15-18	389	2.85	.95	t=.90	
	성별	남	517	2.84			.96	만 19-24	597	2.80		.97
		여	469	2.80			.97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전체	986	2.81	.96	t=.24	연령 (세)	만 15-18	389	2.84	.97	t=.82	
	성별	남	517	2.82			.95	만 19-24	597	2.79		.96
		여	469	2.80			.98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전체	986	3.31	.87	t=-.33	연령 (세)	만 15-18	389	3.35	.84	t=1.03	
	성별	남	517	3.31			.88	만 19-24	597	3.29		.89
		여	469	3.32			.86					
양질의 학교교육	전체	986	3.17	.90	t=-.07	연령 (세)	만 15-18	389	3.15	.91	t=-.40	
	성별	남	517	3.17			.90	만 19-24	597	3.18		.89
		여	469	3.17			.89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전체	986	2.88	.92	t=.21	연령 (세)	만 15-18	389	2.86	.90	t=-.34	
	성별	남	517	2.88			.91	만 19-24	597	2.88		.93
		여	469	2.87			.93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전체	986	2.92	.93	t=1.68	연령 (세)	만 15-18	389	2.95	.91	t=.91	
	성별	남	517	2.97			.92	만 19-24	597	2.90		.95
		여	469	2.87			.94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전체	986	3.00	.90	t=1.74	연령 (세)	만 15-18	389	3.03	.85	t=.99	
	성별	남	517	3.05			.88	만 19-24	597	2.98		.93
		여	469	2.95			.92					

문항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전체	986	3.03	.84	t=.62	연령 (세)	만 15-18	389	3.08	.84	t=1.44	
	성별	남	517	3.05			.84	만 19-24	597	3.00		.85
		여	469	3.02			.85					
청년 실업을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전체	986	2.74	.97	t=.06	연령 (세)	만 15-18	389	2.75	.93	t=.47	
	성별	남	517	2.74			.97	만 19-24	597	2.72		.99
		여	469	2.73			.97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전체	986	2.70	.94	t=.72	연령 (세)	만 15-18	389	2.74	.91	t=.82	
	성별	남	517	2.73			.92	만 19-24	597	2.69		.95
		여	469	2.68			.95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전체	986	3.07	.89	t=-1.16	연령 (세)	만 15-18	389	3.09	.89	t=.70	
	성별	남	517	3.04			.90	만 19-24	597	3.05		.89
		여	469	3.10			.88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전체	986	2.88	.93	t=.81	연령 (세)	만 15-18	389	2.93	.94	t=1.31	
	성별	남	517	2.91			.93	만 19-24	597	2.85		.93
		여	469	2.86			.94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전체	986	3.09	.87	t=-.23	연령 (세)	만 15-18	389	3.08	.89	t=-.13	
	성별	남	517	3.08			.87	만 19-24	597	3.09		.86
		여	469	3.10			.87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전체	986	3.00	.85	t=-.57	연령 (세)	만 15-18	389	2.98	.82	t=-.55	
	성별	남	517	2.99			.86	만 19-24	597	3.02		.87
		여	469	3.02			.8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전체	986	2.88	.87	t=-.12	연령 (세)	만 15-18	389	2.88	.88	t=-.06	
	성별	남	517	2.88			.85	만 19-24	597	2.88		.86
		여	469	2.88			.88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전체	986	2.83	.87	t=-2.08*	연령 (세)	만 15-18	389	2.83	.87	t=-.01	
	성별	남	517	2.78			.87	만 19-24	597	2.87		.87
		여	469	2.89			.87					

문항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전체	986	2.88	.87	t=-.58	연령 (세)	만 15-18	389	2.89	.85	t=.38	
	성별	남	517	2.86			.85	만 19-24	597	2.87		.83
		여	469	2.90			.83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전체	986	2.75	.96	t=3.04***	연령 (세)	만 15-18	389	2.82	.94	t=1.77	
	성별	남	517	2.84			.96	만 19-24	597	2.71		.96
		여	469	2.66			.94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국가 정책	전체	986	2.82	.89	t=1.52	연령 (세)	만 15-18	389	2.88	.86	t=1.51	
	성별	남	517	2.86			.89	만 19-24	597	2.79		.90
		여	469	2.78			.88					

주) *p<.05 **p<.01 ***p<.001

이러한 인식 결과를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주관적 척도 1-10 등급으로 구성)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SDGs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소외계층일수록 사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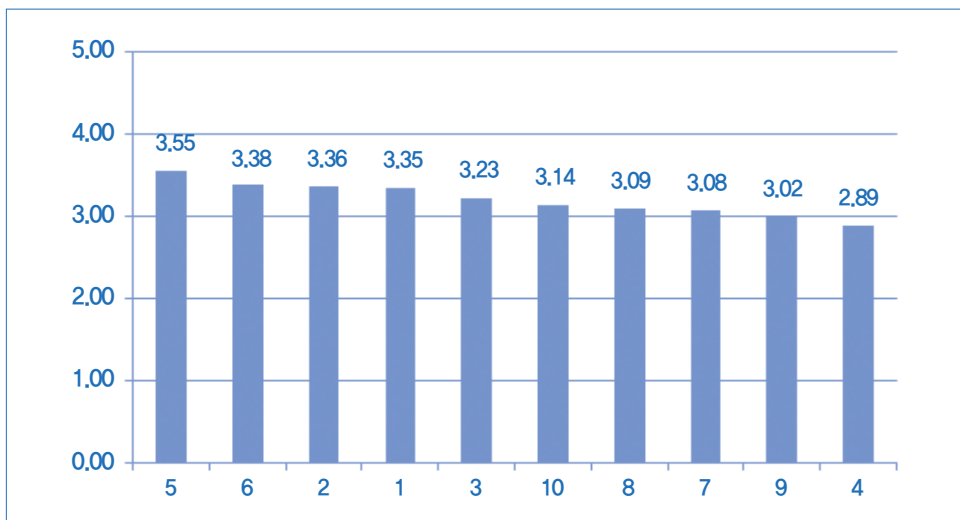
주) ***p<.001

〈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경제적 수준별 차이)

다음으로 SDGs와 관련된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항목별로 평균 점수는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6)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2) 계층 간 불평등,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경제·사회적 형평성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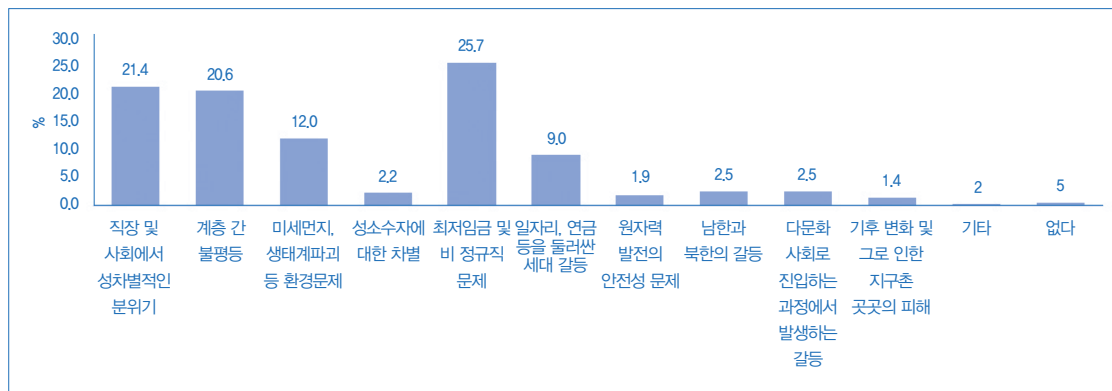
〈표 4〉 사회이슈 관심 (전체)

문항		평균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3.35
(2)	계층 간 불평등	3.36
(3)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3.23
(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2.89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3.55
(6)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연금'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노령, 퇴직,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	3.38
(7)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3.08
(8)	남한과 북한의 갈등	3.09
(9)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3.02
(10)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3.14



〈그림 4〉 사회이슈 관심 (전체)

이들 10개 사회문제에 대해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1-3순위로 표시한 결과를 1순위 비율을 중심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우선 전체 집단으로 볼 때,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사안이 2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차별 문제 21.4%, 계층 간 불평등 문제 20.6%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사안 중에서는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가 12%로 가장 높았다.



〈그림 5〉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이러한 결과를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남자는 사회문제 가운데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6.9%), 계층 간 불평등(20.7%), 성차별(19.1%) 등의 순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반면 여자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4.3%), 성차별(23.9%), 계층 간 불평등(20.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층 간 불평등보다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우선 청소년층에서는 성차별(20.6%), 계층 간 불평등(19.1%),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17.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청년층에서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31.2%), 성차별(21.9%), 계층 간 불평등(21.6%)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청소년층은 적극 해결해야 할 문제 1순위로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16.7%)를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꼽아, 청년층 8.9%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표 5〉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1순위)

구분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 (명)	계층 간 불평등 % (명)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 (명)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명)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 (명)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명)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 (명)	남한과 북한의 갈등 % (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명)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 (명)	기타 % (명)	없다 % (명)	chi-square	
전체	21.4 (211)	20.6 (203)	12.0 (118)	2.2 (22)	25.7 (253)	9.0 (89)	1.9 (19)	2.5 (25)	2.5 (25)	1.4 (14)	0.2 (2)	0.5 (5)		
성별	남자	19.1 (99)	20.7 (107)	11.8 (61)	2.1 (11)	26.9 (139)	9.7 (50)	2.3 (12)	3.3 (17)	2.3 (12)	1.0 (5)	0.0 (0)	0.8 (4)	12.59
	여자	23.9 (112)	20.5 (96)	12.2 (57)	2.3 (11)	24.3 (114)	8.3 (39)	1.5 (7)	1.7 (8)	2.8 (13)	1.9 (9)	0.4 (2)	0.2 (1)	
연령 (세)	만 15 ~ 18	20.6 (80)	19.1 (74)	16.7 (65)	2.1 (8)	17.2 (67)	10.8 (42)	2.1 (8)	4.4 (17)	3.6 (14)	2.3 (9)	0.0 (0)	1.3 (5)	57.22***
	만 19 ~ 24	21.9 (131)	21.6 (129)	8.9 (53)	2.3 (14)	31.2 (186)	7.9 (47)	1.8 (11)	1.3 (8)	1.8 (11)	0.8 (5)	0.3 (2)	0.0 (0)	

주) *p<.05 **p<.01 ***p<.001

1, 2, 3순위를 합하여 사안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0.4%), 계층 간 불평등(18.1%), 성차별(15.5%), 세대갈등(15.5%),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세대 갈등 문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꼽지는 않았지만 2, 3순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0.3%), 계층 간 불평등(18.8%), 세대갈등(16.5%), 성차별(14.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0.4%), 계층 간 불평등(17.3%), 성차별(16.8%), 세대갈등(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차별과 세대갈등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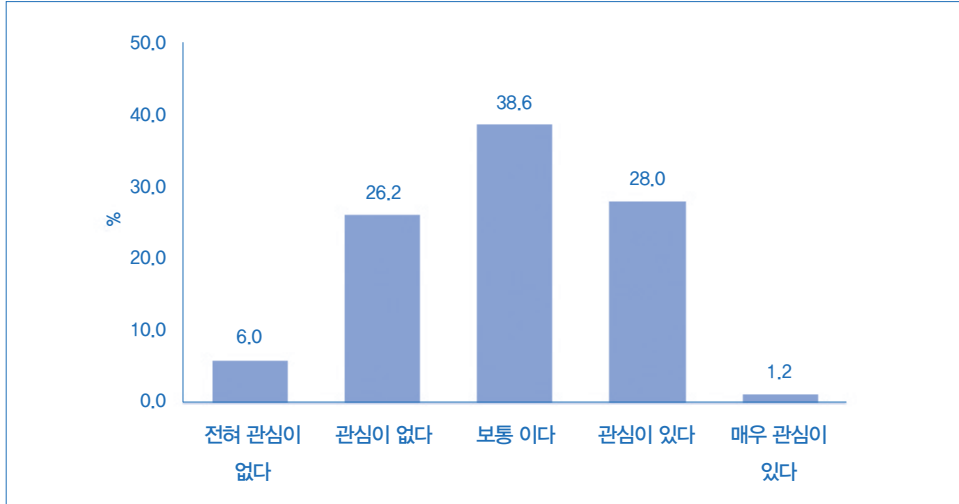
〈표 6〉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1+2+3순위)

구분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 적인 분위기 (%)	계층 간 불평등 (%)	미세 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 문제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최저 임금 및 비 정규직 문제 (%)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	남한과 북한의 갈등 (%)	다문화 사회로 진입 하는 과정 에서 발생 하는 갈등 (%)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	기타 (%)	없다 (%)	chi- square
전체		15.5 (454)	18.1 (532)	10.7 (315)	3.9 (116)	20.4 (598)	15.5 (454)	3.4 (99)	4.5 (133)	3.8 (113)	3.9 (114)	0.1 (4)	0.2 (5)	
성 별	남 자	14.2 (218)	18.8 (289)	11.0 (169)	3.5 (54)	20.3 (312)	16.5 (254)	3.8 (58)	4.8 (73)	2.9 (45)	3.8 (59)	0.1 (1)	0.3 (4)	20.12*
	여 자	16.8 (236)	17.3 (243)	10.4 (146)	4.4 (62)	20.4 (286)	14.3 (200)	2.9 (41)	4.3 (60)	4.9 (68)	3.9 (55)	0.2 (3)	0.1 (1)	
연 령 (세)	만 15 ~ 18	15.0 (173)	16.8 (194)	13.0 (150)	3.6 (42)	17.3 (199)	13.0 (150)	4.7 (54)	6.1 (70)	5.1 (59)	4.9 (57)	0.0 (0)	0.4 (5)	71.48***
	만 19 ~ 24	15.8 (281)	18.9 (338)	9.2 (165)	4.1 (74)	22.4 (399)	17.0 (304)	2.5 (45)	3.5 (63)	3.0 (54)	3.2 (57)	0.2 (4)	0.0 (0)	

주) *p<.05 **p<.01 ***p<.001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청소년은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문제(17.3%), 계층 간 불평등(16.8%), 성차별(15%),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와 세대갈등(각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은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2.4%), 계층 간 불평등(18.9%), 세대갈등(17%), 성차별(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성차별과 환경문제를 더 우선사항으로 인식한 반면 청년들은 계층 간 불평등과 세대갈등을 더 우선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남녀간, 청소년·청년층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청년 세대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는 전체 평균 2.92점으로 보통(3점) 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2%이고, ‘관심이 없다’는 32.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청소년이 청년보다 또래의 관심도가 낮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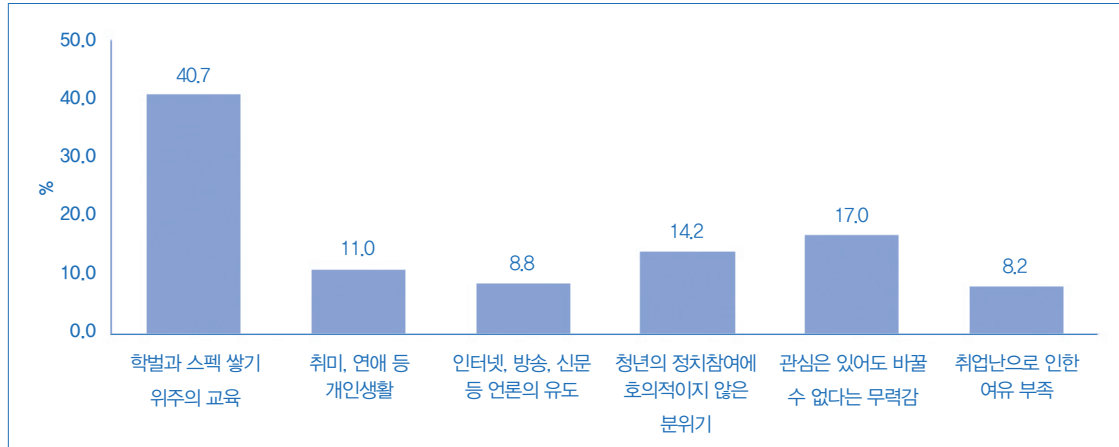
〈그림 6〉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표 7〉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2	.91	
성별	남자	517	2.87	.90	t= -2.05*
	여자	469	2.99	.91	
연령	만15~18세	389	2.66	.95	t= -7.48***
	만19~24세	597	3.10	.84	

주) *p<.05 **p<.01 ***p<.001

위 문항에 '관심이 없다'(32.2%) 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벌과 스펙쌓기 위주의 교육'(4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17%), '청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14.2%),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8.8%),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8.2%)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표 8〉에서와 같이, 해당 항목에 대하여 청소년층과 청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두 연령층 모두 1위는 같았으나, 청소년층에서는 '청년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19.8%)가 2위, 개인생활과 무력감이 공동 3위(13.2%)로 나타난 반면, 청년층에서는 무력감(22.2%)이 2위, 취업난(15.6%)이 3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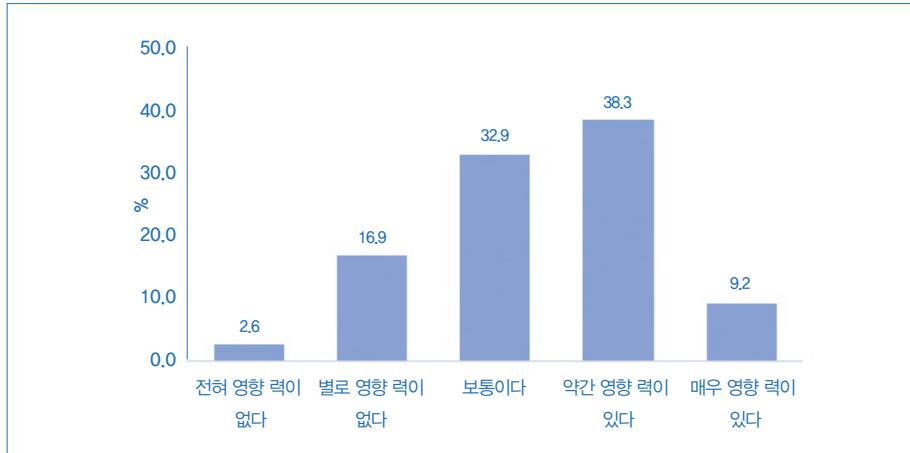
〈그림 7〉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

〈표 8〉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

구분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명)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 %(명)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명)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명)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명)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명)	chi-square
전체		40.7(129)	11.0(35)	8.8(28)	14.2(45)	17.0(54)	8.2(26)	
성별	남자	43.5(77)	11.3(20)	9.6(17)	11.3(20)	17.5(31)	6.8(12)	4.48 4.48
	여자	37.1(52)	10.7(15)	7.9(11)	17.9(25)	16.4(23)	10.0(14)	
연령	만15~18세	42.3(77)	13.2(24)	8.8(16)	19.8(36)	13.2(24)	2.7(5)	30.66*** 30.66***
	만19~24세	38.5(52)	8.1(11)	8.9(12)	6.7(9)	22.2(30)	15.6(21)	

주) *p<.05 **p<.01 ***p<.001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3.3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7.5%가 긍정적으로, 19.5%가 부정적으로 답하여 긍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청년층이 청소년층보다 또래의 영향력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8〉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표 9〉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정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5	.95	
성별	남자	517	3.29	.99	t= -2.06*
	여자	469	3.41	.91	
연령	만15~18세	389	3.14	1.06	t= -5.35***
	만19~24세	597	3.48	.85	

주) *p<.05 **p<.01 ***p<.001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져야 할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 역량과 관련하여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에서 평균 점수 3.3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 역량 관련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이다.

〈표 10〉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1)-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8	.80	
성별	남자	517	3.37	.76	t= -.52
	여자	469	3.39	.83	
연령	만15~18세	389	3.37	.77	t= -.26
	만19~24세	597	3.38	.81	

다음으로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에 대한 문항에서도 평균 3.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여성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1〉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2)-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6	.80	
성별	남자	517	3.33	.81	t= -.96
	여자	469	3.38	.79	
연령	만15~18세	389	3.31	.81	t= -1.42
	만19~24세	597	3.39	.79	

다음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관련 문항에 대해 평균 점수는 3.14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지속가능발전 개인역량(3)-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14	.81	
성별	남자	517	3.11	.83	t= -1.13
	여자	469	3.17	.79	
연령	만15~18세	389	3.12	.84	t= -0.82
	만19~24세	597	3.16	.80	

다음으로 '경제적 자립'과 관련해서는 평균 2.87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인 역량 관련 문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다. 다만 청소년층은 평균 2.72점, 청년층은 2.97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기 역량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4)-경제적 자립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7	.99	
성별	남자	517	2.87	1.00	t= .01
	여자	469	2.87	.97	
연령	만15~18세	389	2.72	1.04	t= -3.82***
	만19~24세	597	2.97	.94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3.02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위 경제적 자립 항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층과 청년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14〉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5)-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02	.82	
성별	남자	517	3.05	.83	t= 1.45
	여자	469	2.98	.80	
연령	만15~18세	389	2.88	.86	t= -4.18***
	만19~24세	597	3.11	.78	

주) *p<.05 **p<.01 ***p<.001

개인 역량과 관련 마지막 항목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에 대하여 전체 평균 3.04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청소년층과 청년층의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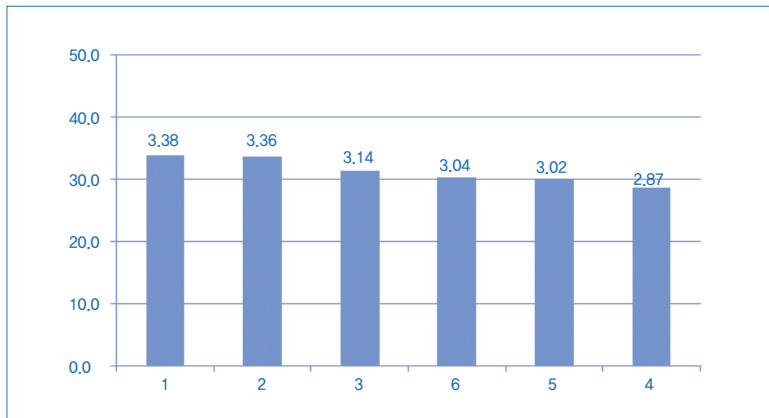
〈표 15〉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6)-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04	.79	
성별	남자	517	3.08	.80	t= 1.54
	여자	469	3.00	.78	
연령	만15~18세	389	3.04	.78	t= -.15
	만19~24세	597	3.04	.80	

개인 역량관련 6개 항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1) 진로, (2) 사회 포용, (3) 환경문제 이해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6) 청년 정책, (5) 경제사안 이해, (4) 자립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앞서 제시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 스스로 역량을 갖춘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전체)

	문항	평균
(1)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3.37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3.36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3.14
(4)	경제적 자립	2.87
(5)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3.02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04



〈그림 9〉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전체)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에 대한 평균 점수는 2.73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고, 연령층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표 17〉 참여의향(1)-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73	1.03	
성별	남자	517	2.63	1.03	t= -3.25***
	여자	469	2.84	1.02	
연령	만15~18세	389	2.75	1.06	t= .49
	만19~24세	597	2.72	1.01	

주) *p<.05 **p<.01 ***p<.001

두 번째 에너지 문제 관련 항목 역시 평균 2.74점으로 참여 의향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고, 연령층 간 차이는 없었다.

〈표 18〉 참여의향(2)-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74	.96	
성별	남자	517	2.68	.98	t= -1.97*
	여자	469	2.81	.94	
연령	만15~18세	389	2.73	.96	t= -0.26
	만19~24세	597	2.75	.97	

주) *p<.05 **p<.01 ***p<.001

세 번째 생태 서식지 보존 활동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2.80점으로 참여 의향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고, 연령층 간 차이는 없었다.

〈표 19〉 참여의향(3)-지역의 생태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0	.97	
성별	남자	517	2.74	.99	t= -2.01*
	여자	469	2.86	.96	
연령	만15~18세	389	2.84	1.01	t= 1.14
	만19~24세	597	2.77	.95	

주) *p<.05 **p<.01 ***p<.001

네 번째, 청년 권익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평균 2.93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까웠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없었다.

〈표 20〉 참여의향(4)-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3	.97	
성별	남자	517	2.93	.99	t= -.09
	여자	469	2.94	.95	
연령	만15~18세	389	2.95	1.00	t= .47
	만19~24세	597	2.92	.95	

다섯 번째 지속가능 소비 관련 참여 의향 역시 전체 평균 2.96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청년층의 참여 의향이 청소년층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1〉 참여의향(5)–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6	.96	
성별	남자	517	2.91	.97	t= -1.80
	여자	469	3.02	.95	
연령	만15~18세	389	2.88	.98	t= -2.11*
	만19~24세	597	3.01	.94	

주) *p<.05 **p<.01 ***p<.001

여섯 번째, 청년대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평균 2.78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2〉 참여의향(6)–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년 대표로 참여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78	.96	
성별	남자	517	2.75	.97	t= -.85
	여자	469	2.81	.94	
연령	만15~18세	389	2.78	.97	t= -.07
	만19~24세	597	2.78	.95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화재 보존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은 평균 2.99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3〉 참여의향(7)-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9	.95	
성별	남자	517	2.94	.97	t= -1.60
	여자	469	3.04	.91	
연령	만15~18세	389	2.99	.98	t= .12
	만19~24세	597	2.98	.92	

마지막으로 탈북민,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에 참여 의향은 평균 2.82점으로 보통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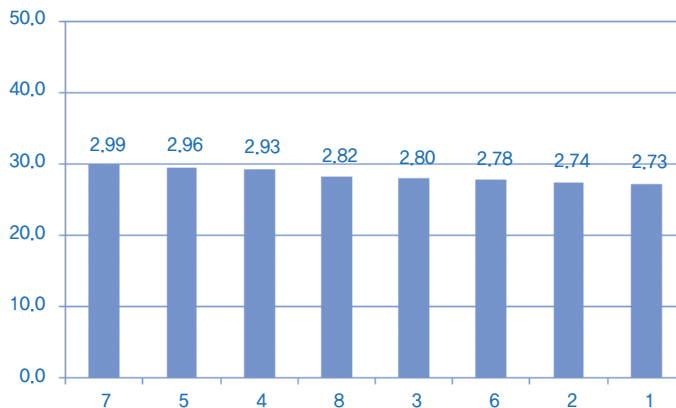
〈표 24〉 참여의향(8)-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2	.90	
성별	남자	517	2.79	.92	t= -1.33
	여자	469	2.86	.88	
연령	만15~18세	389	2.85	.903	t= .75
	만19~24세	597	2.80	.901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8개 항목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가 나타나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전체)

	문항	평균
(1)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2.73
(2)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2.74
(3)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2.80
(4)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2.93
(5)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2.96
(6)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2.78
(7)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2.99
(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2.82



〈그림 10〉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전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SDGs 관련 국가적 과제와 사회 이슈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노동권, 세대갈등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현재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형평성 이슈만큼 관심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경제, 불평등 이슈에 비해 환경 사안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청년이 청소년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또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활동 참여의향으로는 여성이 대체로 참여의향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포용(성 차별, 성 소수자, 다문화사회 갈등) 관련 사안에도 관심이 더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제시된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청소년·청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성별, 연령별 관심사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주요 영역이 아니었던 '청년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정책 제언



III. 정책 제언¹⁾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SDGs의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참여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에 미래세대위원회 설치 · 확산

우리나라에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142개의 의제 21 추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례 제 ·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 및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경우 6년간의 활동 역사를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처럼 청소년 · 청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의제21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미래세대위원회의 설치는 현행 지자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경우 조례를 통하여 위원 구성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서울시 조례를 예로 들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청년”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표 26〉 지자체 조례 제개정(안)(서울시 조례 예시)

조항	기존	개정(안)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 · 청년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8년 8월 31일 인출.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체적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1)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활동 모형 발굴 및 공유·확산

SDGs 4.7에서는 지속가능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에 공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SDG 13.3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인식 제고와 교육을 강조하는 등,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 중심의 청소년 활동은 기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프로그램,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 방식에서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 활동에 대하여 가치롭게 여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되는 여러 이슈(전통문화, 문화유산보존, 성평등, 문화다양성, 세대통합, 도시농업, 에너지감축, 친환경 주거, 기후변화, 지속가능경제, 지역사회 갈등 등)를 중심으로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활동 운영 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집단 등과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방문이나 인터뷰를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간담회 등, 청소년들이 활동 결과 제시한 문제해결 방안 또는 제안 등에 대하여 관련 정책 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활동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가칭) ‘청소년참여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필요시 회의비 수준의 사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어른들도 청소년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른들 자신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여겨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 교류의 장을 통해 활동 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표 27〉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활동 모형 예시

활동 목표	적용 가능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문제 발굴, 조사, 해결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 청소년 동아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문화유산보존, 성평등, 문화다양성, 세대통합, 도시농업, 에너지감축, 친환경 주거, 기후변화, 지속가능경제, 지역사회 갈등 등 신규 주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자료조사를 위한 방문, 인터뷰 등 수행 시 해당기관 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 문제해결방안의 정책 반영 효과제고를 위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 · (가칭) '청소년참여자문단' 운영 · 청소년여울림마당 등을 통한 공유·확산

(2) 다양한 청소년 활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위에서 제시한 과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보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 콘텐츠도 필요하다. 이에 기존 실행 사례 가운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콘텐츠(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는 환경보호 및 체험활동과 공동체 수련활동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국립평창수련원(2015)의 프로그램 개발 사례로는 학교단체 기본형, 자율참가형, 자유학기연계형 프로그램이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연수과정도 개발된 바 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활동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생활 관리나 진로탐색 초점을 두거나, 특정분야의 직업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기초소양교육의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계획과 삶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 개발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목적 하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 자립, 공존의 가치를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운영해 온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턴십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출 및 빈곤 청소년으로서 심리정서, 직업진로, 검정고시, 자립역량 등 총괄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 단계별로 인턴활동을 수행하여 청소년들이 책임감과 소속감을 지니면서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공예, 텃밭활동 등 작지만 의미있는 경제활동을 해보면서 자립 역량을 쌓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청소년기본계획 등 청소년정책에서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맞벌이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면, 참여 청소년들이 복지의 수혜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서 활동할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자 텃밭 가꾸기나 근교 도시 농업에 참여 등 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좋은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2013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텃밭디자이너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4회 차로 구성되었고 실무자들이 생태교육의 관점에서 텃밭가꾸기의 의미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해 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실무자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기관에서 텃밭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28〉 청소년 활동 콘텐츠 예시

활동 목표	적용 가능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방향	참고 사례 ²⁾
환경보호·체험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 수련활동	·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적 감수성 증진 활동 · 청소년 문화·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	국립평정수련원(2015).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청소년수련활동 자연생태환경 프로그램.
자기계발 및 자립역량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두드림, 특성화프로그램	·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미래지향적 사고의 훈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 행복과 성공 등 삶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가치 정립 · 수공예, 텃밭활동 등 참여에 대한 인턴제 실시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2013-2015)
건강 및 생활관리 역량 강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상자 텃밭, 텃밭가꾸기 등 도시농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의 가치 이해 ·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3). 지역아동센터 생태텃밭디자이너.

이러한 콘텐츠 안을 비롯하여 청소년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먼저 수요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의 목적은 다양한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활동, 복지, 자립지원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2) 출처: 이재영·정수정·곽정난 (201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계 청소년수련활동 자연생태환경 프로그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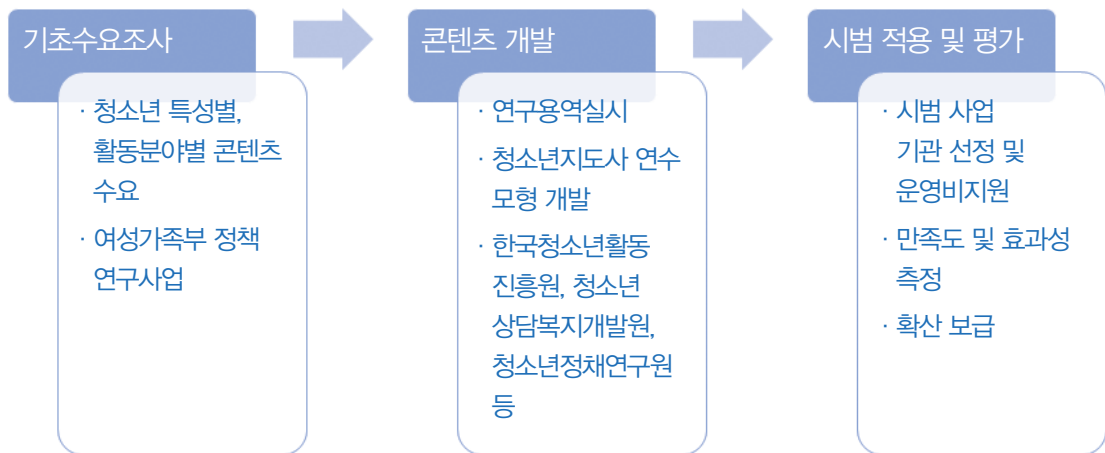
황세영·조성화 (20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실무교육; 지역아동센터 생태텃밭디자이너, www.icareinfo.info.에서 2016년 7월 20일 인출.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2015).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 결과보고서(2013-2015).

있는 활동 콘텐츠의 주제와 영역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 활동의 미래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주제에 대하여 콘텐츠 개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영역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영역의 범위에는 청소년 특성별, 시기별, 활동유형별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모형 개발도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국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선발된 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 콘텐츠의 운영 및 평가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활동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기관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안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1〉 청소년 활동 콘텐츠 다각화 사업 추진 절차(안)

(3)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앞의 설문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층은 우리사회가 성장일번도의 정책보다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년층은 청소년층에 비해 사회문제 및 관련 활동 참여의향에 있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청소년과 청년층은 각각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사와 참여의향 정도가 다른 만큼 기존 청소년 활동과는 다른 방식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활동정책 추진체계는 정책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주도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에서도 청소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 정책 추진체계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일부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사업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 사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및 관련 당사자의 참여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이러한 협조체계의 부재를 드러낸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활동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 기타 지속가능발전 관련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킹과 협조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는 환경 관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의 청소년·청년활동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역시 에너지교육, 문화재보호활동, 도시농업 관련 교육·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동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협조아래 청소년 자원봉사,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등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를 통하여 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 의제21 추진기구에서는 다수의 청소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 주도의 활동보다는 홍보 및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소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의제21 추진기구에서는 활동의 콘텐츠와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실제 활동을 기획하고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원예산에서 청소년 및 청년 비중을 할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활동 콘텐츠로는 청소년의제 또는 청년의제 작성,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지표 검토 및 모니터링, 지자체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제안 등이 가능하다. 또한 아래 [그림 12]와 같이, 기존 지자체21 추진기구의 청소년사업이 주로 SDG 4에 포함되어있었다면, 도시농업, 진로탐색, 세계문화축제, 성인지 감수성 워크숍, 청년창업, 문화유산답사, 아동·청소년 차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소년·청년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



〈그림 12〉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의 다각화³⁾

이처럼 지역사회 청소년·청년 활동 체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의 지정을 유도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있다.

〈표 29〉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	기존	개정(안)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상동) (신설) 8. 「환경교육진흥법」 제 2조 및 제 10조의 사회환경교육기관

마찬가지로 기존 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비롯하여 환경교육 사업에서 청소년활동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부처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사업 예시 출처: 오수길·윤경호(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현황 보고서: 지역보고서, p. 17.

〈표 3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	기존	개정(안)
제5조 (환경교육진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SDGs에 대한 청소년 인식 제고

(1) 청소년 관련 매체를 통한 SDGs에 대한 인식 확산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SDGs 각 목표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관련된 이슈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정보 제공의 기능도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SDGs와 관련된 청소년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벤트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벤트의 내용은 단순히 특정 지식에 대한 정답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SDGs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련 이슈를 찾는 방식 등, 청소년 스스로가 SDGs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콘텐츠는 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메뉴로서 탑재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e랑, 부처 및 산하기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

(2) (가칭)“SDGs와 청소년 주간” 운영

온라인 홍보활동 외에도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SDGs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SDGs에 대한 청소년 체험행사 활동으로 아일랜드의 One World Week을 벤치마킹하여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사례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주간’ 등이 있으나,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SDGs와 청소년 주간의 구성(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 31〉과 같다. 주간은 7일 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수 있다. 일부 일정은 청소년 박람회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주간의 내용은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퍼포먼스 등 홍보활동과 발표회, 토론회, 포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학술, 민간 행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공·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행사 참여도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표 31〉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 구성(안)

차수	행사	주요내용
1일차	SDGs와 청소년 주간 개막식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퍼포먼스 등
2일차	지속가능발전과 미래세대 한마당	청소년 활동 사례보고회,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등
3일차	청소년이 원하는 미래(The Future Youth Want)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
4일차	SDGs 분야별 청소년포럼 (1)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5일차	SDGs 분야별 청소년포럼 (2)	지속가능도시조성과 청소년 참여
6일차	미래세대 토크콘서트	다가올 미래변화에 대한 전문가 강연 등
7일차	세계 유스리더 포럼	SDGs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각 국의 청소년·청년들 간의 회담, 유스 선언문 작성 등



참고 문헌



참고문헌

고재경, 김동영, 이정임, 이양주, 송미영, 김희연 외 (2013).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국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8년 8월 31일 인출.

김진희, 최정운, 박환보, 안해정, 서기준 (2014).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 결과보고서(2013-2015). 미발간자료.

오수길, 윤경호 (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지역보고서(부천). 서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재영, 정수정, 광정난 (201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계 청소년수련활동 자연생태환경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실무교육: 지역아동센터 생태텃밭디자이너. www.icareinfo.info에서 2016년 7월 20일 인출.

황세영, 조성화 (20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김남수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utesa, S. (2015a). *Conceptnote of High-Level Ev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PAY) and to highlight Youth Prioritie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2015. 3. 9). [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5/03/090315_20th-anniversary-wpay.pdf/](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5/03/090315_20th-anniversary-wpay.pdf) 에서 2018년 8월 31일 인출.

Kutesa, S. (2015b). *Report of High-Level Ev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PAY) and to highlight Youth Prioritie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5. 5. 29). 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5/08/240615_Summary-of-key-messages-for-High-Level-Event-to-mark-the-20th-Anniversary-of-the-World-Programme-of-Action-for-Youth.pdf/ 에서 2018년 8월 31일 인출.

UN SG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eports/SG_Synthesis_Report_Road_to_Dignity_by_2030.pdf 에서 2018년 8월 31일 인출.

UNDP (2014).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UNDP.

UNDP (2016). *Fast facts: Youth as partn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UNDP.

UNESCO (2015). *UNESCO's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197 EX/7. Paris: UNESCO.

UNICEF (2014). *A post–2015 world fit for children: A review of the open working group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 child rights perspective*. UNICEF.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발행일 2018년 9월 29일 / 발행인 이익현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TEL (044) 861-0483 / FAX (044) 868-9919

